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기본계획(안)수립
연구용역(요약본)

2004. 7.

성공회대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
명지대국제한국학연구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제 출 문

이 보고서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2003년 9월1일 계약 체결한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기본계획(안)수립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보고서(요약본)으로 제출합니다.

2004. 7.

연구책임자
성공회대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 한홍구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 기본계획 연구 수행 보고

본 연구는 아래의 연구 진행 방식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각 부분의 전문가들과 자문위원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의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계획의 배경과 범위



-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과거 역사청산 작업을 정리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중 기념관 건립의 의미 도출
- 기념관 건립계획의 연구 범위 검토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의 필요성과 의의



- 기념관 건립의 당위성 제시: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세계사적 의미와 위상 제시
- 기념관 건립 목표 설정:
기억과 성찰, 교육과 문화, 소통과 연대

국내외 유관사례 분석 및 의견 조사



- 사례분석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현장 취재 방식의 국내외 사례조사 진행
- 연구의 타당성 의견조사: 전국 유관단체 및 관련자 설문조사 실시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방향과 조성의 기본구상



- 기념관의 건립방향과 원칙제시: 허브형, 복합문화형, 소프트웨어 기획형, 공간민주형, 만들어가는 구성형, 테마형
- 주요 공간구성 및 프로그램 방안 제시: 전시관, 사료관, 교육센터, 국제센터, 연구소 및 사이버 민주화운동 기념관
- 건축, 재정, 운영계획 마련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의 입지선정 계획



- 입지선정의 쟁점 정리
- 입지선정계획, 입지의 위상과 성격, 국내사례분석을 통한 입지선정기준 마련
- 입지선정 의견 조사 분석 및 후보지 분석, 평가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기본계획



- 건립추진위 구성의 쟁점과 방향 제시
- 건립 추진위의 조직과 역할
- 건립 추진 경로와 일정

정책적 제언 및 기대 효과



- 정책적 제언: 필요성과 의의, 목표, 공간구성, 후보지, 운영, 추진위, 건립시기 등
- 기대효과: 국민정신의 산실, 국민통합의 구심점, 세계사재구성과 세계평화실현의 거점, 민주화운동 기념시설의 전국화 및 특성화 구축

I.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계획의 배경 및 범위

1. 건립계획의 배경

역사적 배경

- ☞ 1) 아래로부터 기억 되살리기
- 2) 위로부터 한국 민주화의 재조명
- 3) 민주화 관련 과거청산의 진행
- 4) 명예회복과 기념
-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추진 배경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기념관건립의 의미

1) 국내적 의미: 우리사회의 정의와 양심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 온 사람들이 그동안 무시, 과편화되고 왜곡되어 온 민주화운동을 '기억'통해 결집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리고 결집된 기억을 공유의 자산으로 만들어 후대에 전수함과 동시에 민주화의 전통을 오늘에 다시 살려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기억'투쟁이다. 또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초를 당하고 불의의 죽음을 맞은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우리식 '한 풀이 곳'이며 전 국민화해와 화합의 메시지이다.

2) 세계사적 의미 : 민주화운동을 통한 우리식 민주화의 길, 우리가 확보한 사회, 문화적 가치는 평화공존가치라는 세계사의 미래지향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 숭한 역사적 굴곡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함께 일구어낸 민주화수준은 이미 세계에 각인된 바이며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국위선양의 세계적 자산이다.

2. 건립계획의 연구 범위

기념관의 개념적 범위: 명칭, 내용구성

☞ 명칭: 민주화운동인가, 민주주의인가?

: 우리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포괄하면서도 민주화운동의 희생과 헌신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그러한 운동의 역사적 의미,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내적 문제들 그리고 남북관계 및 세계사적 맥락을 강조한다는 미래적 함의를 담은 의미에서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제시하고자 한다.

☞ 범위 : 민주화운동의 시간적, 사건적 포괄 범위

: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은 해방이후 모든 민주화운동을 시간적, 사건적으로 포괄하되 개별 민주화운동의 독자성을 살려 이를 연계하는 기념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간적 범위: 기념관인가, 기념공원인가?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은 우리 사회의 삶의 가치지향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으로 재편해내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2세대, 미래 세대들을 위한 사회가치로서 ‘민주화운동’을 공동체속의 삶으로서 일상적으로 구현해갈 절실한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가정과 학교만으로는 담보해 갈 수 없는 사회적 환원과 책임의 문제임으로 ‘기억과 기념’ 뿐 아니라 가치생산을 위한 ‘복합문화’ 기능의 공간 속에서 함께 해결해 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민주가치의 생활화를 위한 거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은 단지 기념관이 아니라 기념공원이어야 할 것이다.

II.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의 필요성과 의의

1.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의 당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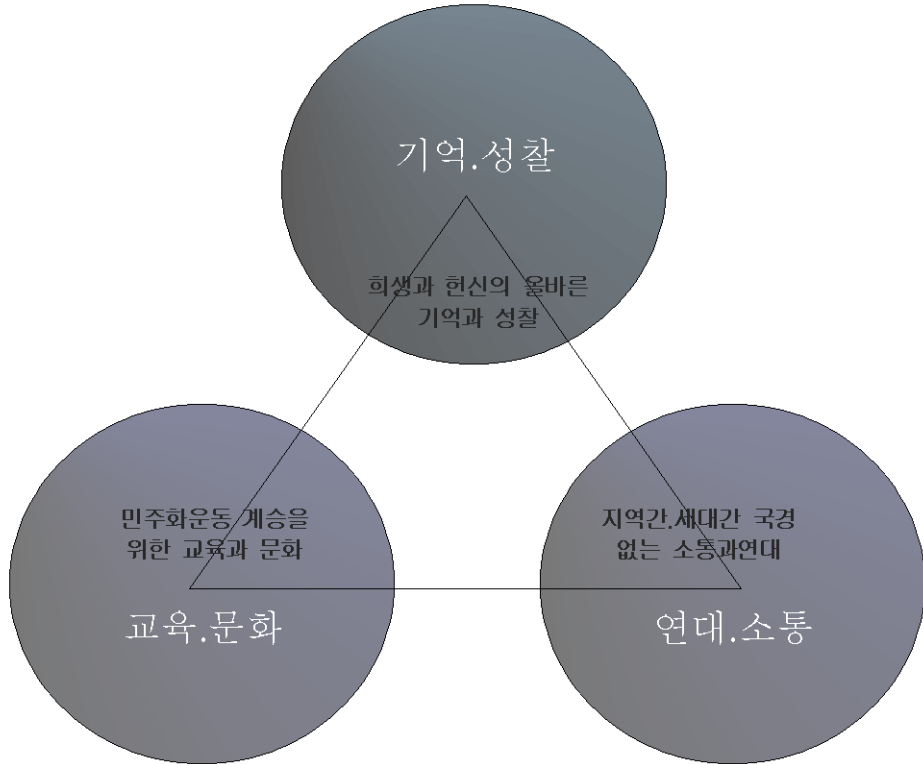


- 1)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위상**
 - (1) 한국 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 민주화를 향한 중단 없는 투쟁과 헌신의 역사
 - (2)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 : 선구적·중층적·자기 희생형 민주주의 투쟁
 - (3)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철저한 민주개혁의 출발, 지속적인 과거청산, 민주화의 범지구적 확산

- 2) 한국 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의미와 위상**
 - (1) 동아시아 및 제3세계적 의미와 위상 : 선구적 전형의 창출
 - (2) 세계사적 의미와 위상 I : 전후 근대화전략의 세계사적인 저항과 희생
 - (3) 세계사적 의미와 위상 II: 민주주의의 보편사적 맥락에 등재된 한국 민주화운동

- 3)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의 필요성과 의의**
 - (1) 국민정신의 산실: 독립기념관(독립정신)에 버금가는 국민정신(민주주의 정신)의 새로운 산실
 - (2) 국민통합의 구심점: 과거 갈등을 해소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책임의식을 키워줌으로써 화해를 향한 국민 일체감 형성의 구심점
 - (3) 평화공존 가치의 세계화 거점: 한국 민주화운동의 세계화는 곧 우리가 확보한 민주화의 가치를 평화와 공존이라는 세계사의 미래지향으로 이끄는 또 하나의 동력이 될 것임으로 이를 담당할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은 우리 국민의 자부심과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거점이 될 것이다.

2.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의 3가지 목표



1) 희생과 헌신의 올바른 기억과 성찰

(1) 사회적 동풍장치 : 기억을 통한 과거와 미래의 사회적 동풍
 (2) 기억 되살리기: 독재와 억압, 학살의 기억,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기억, 해방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기억, 독재와 억압과 학살에 대한 '침묵'의 기억. '과거'를 소재로 한 '미래'를 향한 '현재'적 투쟁, 이것이 바로 '기억투쟁'의 의의이다.
 (3) 기억을 통한 성찰: 기억은 사실 우리의 얼룩진 과거에 대한 성찰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얼룩진 과거를 용인했던 우리 사회의 자성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금 독재의 유혹이 커지는 때가 오더라도, 그 독재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단호히 민주주의를 사수하려는 정신적 도양을 배양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4) 기억의 댐 만들기(기록의 보존 및 정리): 역사의 기억과 기록이란 본래 사회 공동체의 공유자산임으로 공유의 자산을 잃어버린 사회는 크게 비틀거리지 않을 수 없고 화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두루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 되살리기, 기억의 댐 만들기는 대단히 중요한 현실 사회적, 현실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제라도 체계적으로 기억을 보존하고 기록을 수집, 정리하여 후대에 전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2) 민주화운동 계승을 위한 교육과 문화

(1) 민주화운동의 교육화: 민주가치 배양 교육 및 실천

- 민주주의는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핵심적인 의제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인 것은 맞지만 아직도 사회 구석구석에는 비 민주주의적이거나 반 민주주의적 행태들이 부지기수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은 정치민주화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인간해방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다층적인 민주주의 권리확대의 역사를 보여주고 미래 세대들이 배우도록 하는 장이 필요하다.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그러한 민주화과정을 배우고, 체험하고 실천하게 될 것이다.

(2) 민주화운동의 문화화(문화적 콘텐츠화)

-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구성작업이어야 한다. 단순히 또 하나의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유의미한 문화적 구성물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 기념양식을 통한 민주화운동의 계승은 그 과정이 작위가 아니라 문화가 되는 나름의 상들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곧 새로운 <기념양식의 문화적 창조>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역간 , 세대간, 국경 없는 소통과 연대

(1) 전국의 종횡적 소통과 연대의 공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민주화운동사적지를 발굴 및 보존 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기념시설을 세우고 이것들을 종합적이고 유기적 연관을 갖는 연계시설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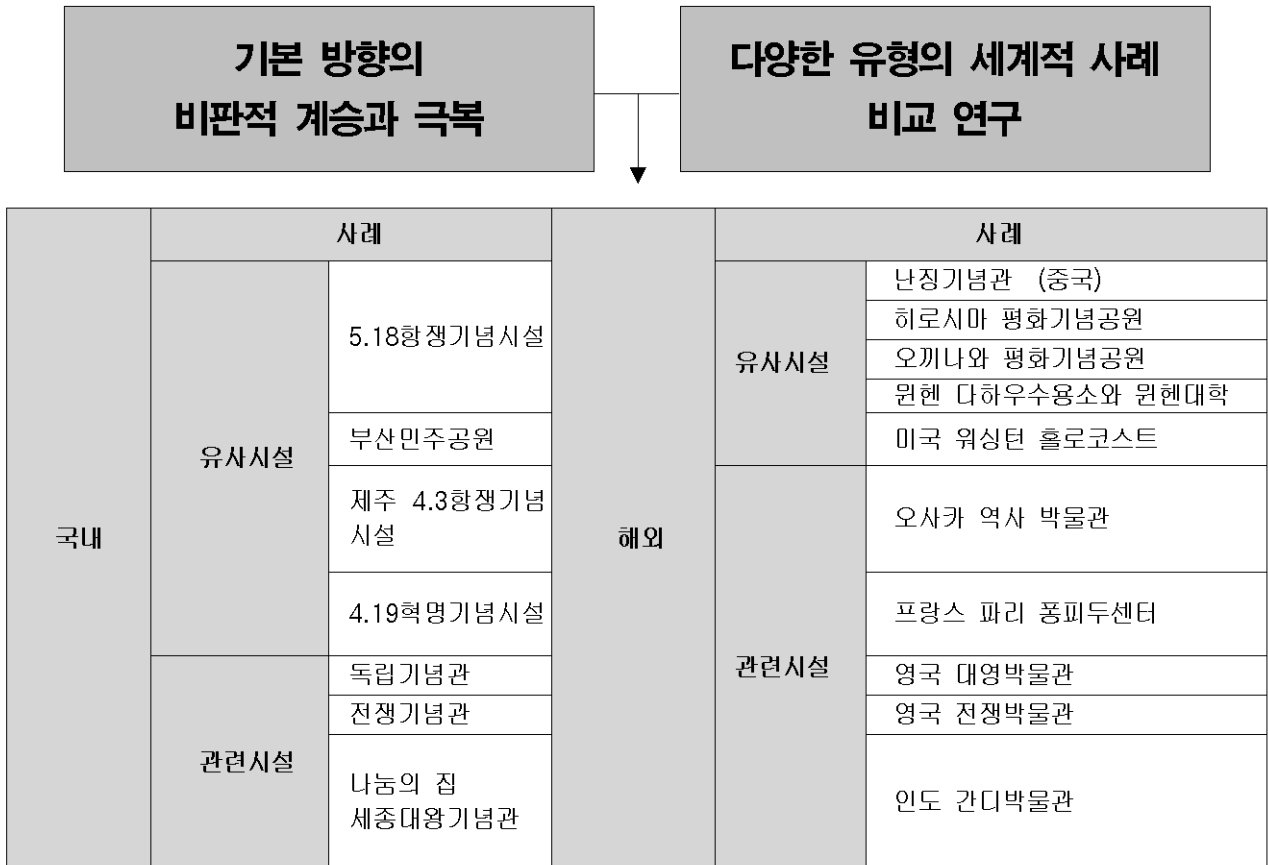
(2) 동시대인과 미래세대의 동시대적 연대와 소통: 반독재 세대들은 독재와 저항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후세대들이 반독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귀중한 것으로 체득할 수 있는 계기와 방법을 마련하는데 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은 동시대인과 미래세대가 함께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며 민주주의적 가치를 체득하는 중요한 계기와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3) 세계 민주화의 연대와 소통 :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은 우리 민주화운동의 창조적 경험 속에서 동아시아의 근대극복의 역사를 민주화를 통해 재맥락화 함으로써 서구와 다른 공통의 아시아적 문화,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적이고 아시아적인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민주화의 회통처(回通處)가 될 것이다.

II. 국내외 유관사례 분석 및 의견 조사

1. 국내외 유관사례 분석

1) 사례분석의 방법과 대상



2) 국내 사례분석

① 입지 측면

- 입지적으로 초기에 지어진 민주화관련 시설들은 대부분 교외나 도심을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초기의 시설들이 대부분 묘역과 함께 구성되어 추모형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개방적이기보다는 고립되어 존재하는 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 앞으로 추모형 기념공간이라도 도시공원으로서의 문화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추모의 공간과 기념공간을 조화롭게 구성될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② 공간구성 측면

- 기존 사례들은 건축공간의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면서 단일 목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념관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공간들이 부족하고, 관리위주의 동선배치들만을 보여준다. 지역주민들의 활용 공간, 참여적 공간, 개방적 장소들의 부족하거나 단절되어 구분지어 있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능적인 구분에 따른 단절적 경향은 다양한 행위들의 수용을 어렵게 만들고, 각 행위들 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다.

- 앞으로 건립될 기념관은 관리적 공간과 서비스 공간을 구분하여, 필요에 따라 상가, 휴게실, 자료실, 참여 공간 등을 개방적으로 수요에 맞추어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전시 측면

- 전시내용의 측면에서 기존 사례들은 전시주제영역의 협소함과 내용상의 단편성이 두드러진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Context)적인 정보들이 부족하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해석의 여지와 가능성들이 제한되어져 있다. 동시에 세계사적, 동아시아적 차원에서의 민주화에 대한 확대된 시야가 당시에는 어려웠을 것이고, 다양한 생활사적 측면들의 검토들 또한 현재의 과제로 남아있다.

- 전시기법 상에서 내용이 부족한 상태로 형식적으로만 포장된 진열형식의 전시기법들이 주종을 이룬다. 최근에 건립된 기념관일수록 좀 더 발전된 경향을 보이지만, 평균적인 형식모방으로 독창적인 실험정신이 부족한 측면이 나타난다. 작지만 체험적이고 감성적인 차원에서의 승화가 필요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고려한 내용전개가 필요하다.

- 전반적으로 내용과 콘텐츠 기획의 창조성이 필요하며, 소프트웨어의 부족을 탈피할 운영체계 상의 문제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곧 연구와 전시의 분리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와 갱신, 업데이트와 새로운 기획들이 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운영관리 측면

- 예산상의 한계 때문이겠지만 대부분 건물의 건립자체에 목적이 있고, 소프트웨어의 부족, 사후 관리의 어려움, 지속적인 투자의 결여 등으로 인한 황폐화 등이 진행되게 된다. 운영관리 및 조직의 측면에서 볼 때 연구 및 학예 기능 인력의 미비로 단순 관리행정 이상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질 않는다.

- 연구와 전시가 결합된 깊이 있고 시의 적절한 기획전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의 민주화 관련시설들은 적지 않은 한계를 갖고 있다.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등의 대규모 기념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도가 이루어질 뿐이다.

<표1> 요소별 국내 기념공간들의 현상과 개선방안

	과 제	개선방안
목적	.추모형, 기념형	.복합 문화형
입지	.교외형, 도심외곽형 - 특정 목적에서만 찾아가게 됨 - 도시 일상생활과 연계 어려움	.도심형 - 도시 문화시설의 기능수행
공간,구성	.내용상에서 단일 기능 위주의 공간구성 .형식적으로 시민서비스 영역, 참여영역의 미비 -시설보완 필요	.지속적 진화적 공간형성방안 .계속적인 투자와 환경개선의 필요
전시	.주체의 협소함 .내용적으로 맥락정보의 필요 .자민족주의, 집단이기주의의서 벗어나는 보편적 메시지의 전달이 필요 . 교육과 학습차원의 개발이 필요	.민주화의 맥락이 되는 한국현대사박물관이 필요 .세계적, 동아시아적 관점에서의 조명과 연대 필요 .현대적 민주주의의 과제를 모색 .어린이 청소년계층을 위한 영역이 필요함.
조직,관리	.관리행정 중심 .단순 시설관리에 한정되어 운영됨	.연구기능 결합, 다목적 조직체계의 필요성 .학예, 전시 기능의 다양성 필요 .운영 효율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 필요.
사업	.특별, 기획전 등의 어려움 .콘텐츠의 생산기지가 되지 못함. .마케팅 측면의 접근 어려움 .지속적 투자의 한계 .수익성 결여	.디지털 시대의 사이버 뮤지엄 활용 .콘텐츠 생산과 다양한 매체로의 활용 . 수익성, 마케팅 등 브랜드화 방안

3) 해외사례 분석

① 입지의 측면

- 해외의 경우 입지와 장소성에서부터 도심의 주요 상징지역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활용성이 높고 동시에 도심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서 기능하는 기념관의 존재가 돋보인다. 대표적으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과 파리의 풍피두센터가 인상적이다. 여기서 공원과 건물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시민들의 휴식과 일상 활동들이 어우러진다.

- 동시에 건물은 일반인의 생활 동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연속성을 갖고 있고,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단체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참여와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즉 고립된 섬으로서의 단일한 기능보다, 주변 도시 기능 및 시설과 잘 연계되어 광역적인 시너지를 창출해내는 구조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 역시 공간적으로 고립적, 권위적, 지배적이지 않고, 주변과 잘 조화되어 더 나은 문화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민주화운동이 주로 도시 한 복판 길거리 운동이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이러한 외국 사례들은 우리에게 ‘도시’라는 입지상의 문제를 주변 관계 속에서 잘 풀어내야하는 숙제를 던져 주고 있다. 민주화를 이룬 도심의 ‘해방공간’, 우리는 오늘의 한국 어느 도시에 이러한

공간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② 공간구성의 측면

- 공간구성의 측면에서도 내, 외부 공간의 연속과 교차는 야외전시와 실내전시를 통합하면서, 동선체계 상에 흐름과 이야기 연결의 연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 또한 각 기능적인 시설들의 배치와 구성에서 사용자 편의시설의 확대와 주제 내로의 통합이 필요하다. 히로시마의 경우처럼 공원 각 영역마다 위령비, 조각, 지표석 등으로 장식되듯이, 민주적인 제반 과제에 부응하는 화장실, 게시판, 벤치 등 가도장치물 및 각 기능공간에서의 세심한 설계와 기획이 방문자에게 또 다른 감동과 체험을 제공해 줄 것이다.

③ 전시부문

- 전시기법에서 공간적인 연출과 더불어 두드러진 새로운 유형은, 전시동선 자체가 과거 공간 및 인물들의 재현을 통해 인공적인 가로환경 속에서 체험적인 전시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 오르세 미술관의 유리 안 인형전시, 난징 기념관의 인체조각상과 발조각, 오사카 박물관의 고대 국가의례의 실물형 재현 및 그 사이를 통과하면서 전시가 이루어지는 체험, 그리고 거대 공간의 창문조명 전체의 연출을 통한 신비로운 연출 등, 전시 기념 공간 전체가 하나의 무대가 되는 구성이 과거의 단순한 판넬형 전시의 단순함을 극복하는 좋은 사례들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법은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에 필요한 상황과 사건의 재현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 판넬, 영상전시 등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입체형 조각의 영역이 현대적인 전시영역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경향을 에도도쿄, 오사카 및 남경 등에서 보게 된다. 공간체험의 입체화와 아울러 전시영역의 입체화는 조각적인 차원, 환경적인 기법 등의 활용을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

- 이야기와 시나리오가 있는 전시는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동선 상의 선택적 자유도의 증대가 필요하다. 남경학살기념관의 경우 주어진 강제 유도 동선 상에서도 결절점 마다 선택적인 동선과 휴식 시설, 복합 공간 영역 등을 두어 관람자의 자유로움을 허용하고 있다.

- 또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의 풍부함이 돋보이는 사례들에서 기념관의 존재의미를 느끼게 된다. 영국 전쟁박물관의 경우 세계대전과 그 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유물과 모형들이 좁은 전시구역에도 꼭 채워져 있어, 전쟁을 테마로 하는 어디에선가는 개인이 관심을 갖거나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러한 자료와 유물의 포괄성과 방대함,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의 합성이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보다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임이 분명하다. 나눔의 집처럼 작고 초라한 건물이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의 방대함이 오히려 압도하는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다.

- 그리고 보존형 전시와 기념물의 조형을 통해 전시의 효과를 증폭시킴으로써 기념관인 동시에 기억과 성찰의 의미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는 곳으로 독일 뮌헨의 다하우 수용소를 들 수 있다. 다하우 수용소는 세계 홀로코스트 기념관 중 대표 격인 아우슈비츠와 달리 자행국인 독일 안에 있음으로써 기억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와 성찰의 의미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

- 기존의 공간 속에 상징적 조형물로서 생활 속에 살아있는 전시효과를 가장 극명하게 그러나 강렬하기 보다는 스며드는 형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은 뮌헨대학 안의 백장미단 기념물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당시에 만든 전단들을 학생회관 앞, 시위하던 그 자리에 동판부조로 박아두는 것, 그 바닥의 부조로 그들은 아름다운 저항

을 현재화시키고 있었다.

- 또한 난징학살기념관 옆에 있는 우화대(雨花臺)라는 혁명열사기념 공간은 학살 장소, 거대한 구덩이에 그대로 물을 채워둠으로써 기억과 성찰의 의미를 극대화한 무용지용(無用之用)의 상징적 기념물이다. 학살된 장소에 담긴 물은 하늘도 비추고 사람도 비춘다. 명경지수(明鏡止水), 그 거울 같은 물의 의미로 이 장소에서 벌어진 일은 그곳을 다녀간 사람들 가슴에 영원히 형상되는 잔상을 남긴다.

④ 운영

- 운영측면에 있어서는 연구사업이 전시사업과 거의 같은 비중으로 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기획전시와 자료 및 정보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기념관의 전시가 단순 고립된 업무가 아니라 원소스 멀티유즈의 콘텐츠 창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영국 전쟁박물관의 경우 ‘여성과 전쟁’이라는 기획전시를 하는 데 단지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교육 및 연구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와 논문발표(심포지움, 세미나), 자료집 및 책자발간, 다큐멘터리, 방송물 제작까지 한번에 다양한 문화콘텐츠 및 기념품들을 개발, 판매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원소스 멀티유즈 창출이며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 운영에서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운영방식이다.

- 나아가 교육과 실천 측면에서의 결합 역시 기념관의 중요한 기능이다. 워싱턴의 홀로코스트나 포피두센터의 경우처럼 차세대 민주화운동가 및 교육자들의 육성, 자원봉사자의 육성, 다양한 후원자들의 조직화 등 공식, 비공식 조직의 확대와 네트워크 구성도 절실히 요구된다.

⑤ 사업과 행사

- 기념 산업, 문화유산산업, 추모 산업도 경제학적 시장원리가 작용될 수 있다는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홀로코스트는 홀로코스트(유대인학살기념관) 산업으로 부각될 정도로 서구 각 지역에 확산되어있다. 영국의 전쟁박물관도 런던 이외의 지역에 5개의 분관을 갖고 있으며 이를 모두 총괄하면서 통합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전쟁박물관은 외국방문객 증가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세워두고 있다.

- 중국의 경우 기념과 기록사업을 문화산업의 영역에 가장 잘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전국에 산재해있는 혁명열사묘역과 기념관은 천안문광장에 있는 모택동기념당과 인민영웅탑, 역사박물관을 정점으로 노신박물관과 고거(故居) 등 중요인물들의 개인박물관과 옛집들의 포진 등이 기록과 기념의 나라답게 집약과 집중 그리고 확산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온라인 모택동기념당의 집중성과 활성화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런 모든 과정은 사회주의국가라는 특징과 함께 국가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기록과 기념사업을 국가중점문화와 교육사업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중국을 유지하는 기본정신을 이루고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문화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중국의 문화 콘텐츠 사업의 중요한 구성성분이자 기본내용을 이루고 있다.

- 마찬가지로 우리의 민주화도 ‘민주화운동산업’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관의 전시, 행사 및 각종 프로그램이 공유되면서 문화적, 교육적 경제력을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하며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을 통해 그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업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고, 대규모의 ‘민주화운동’ 시장을 형성하면서 기획 개발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이 종합적인 브랜드 가치로 성장할 수도 있고, 동시에 수출가능한 문화산업이 될 수도 있다. 즉, 서구가 전쟁과 홀로코스트로 브랜드화를 시도하였다면, 우리

는 새로운 문화가치로 창조한 ‘민주화운동’을 브랜드화 하여 전 세계에 확산시킬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창출해야 한다.

<표2> 해외 기념시설의 현상과 과제

	현상적 주요 측면	미래적 과제
목적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의 전환	21세기형 민주화예의 대처
입지	.도심입지, 지역연계성이 중요 - 히로시마 .주변시설과의 연계 - 고립형의 문제	.주변지역 기능, 시설의 활용, 연계 전체적 분담과 네트워크화-공유시너지화 방안
공간	.광역형-결합형-단일형 .24시간 개방형 (퐁피두센터) .지하 지상으로 구성 - 평면 개방형 .시설의 다양화 .복합성격 공간 구성	.단일 대공간형 - 시설의 내부화 .젊은 에너지의 수용과제
전시	.콘텐츠의 중요성 .조각형 공간체험형 (에도, 오사카) .환경-야외-실내 결합형 / 연속전개 -이야기와 시나리오가 있는 구성 .선택형 다양 동선 .선진적일 수록 기획전시가 풍성함(영국)	.참여형 과제 .콘텐츠 확대방안 - 공모
조직체계	.민간주도형, 지역연계형 - 공론화 과제 .연구기능과의 결합 시너지 .정보센터의 활용 .기업형 - 브랜드화 수익전략 (영국 전쟁박물관, 홀로코스트산업)	.위탁과 네트워크체계 .참여적 조직화 과제 .교육 훈련기능 연계방안
사업	.콘텐츠 활용 .시의성, 갱신주기 .산업화의 논리 - 유지업 삼의 활성화 (캐릭터 브랜드화, 매체결합, 다양화)	.개인주의 시대에 부합하는 민주 콘텐츠의 발굴과제 .전통 역사와의 결합과제

4) 종합분석(유형별 분석)

(1) 기능적 분석

- 문화적 기억은 죽은 이들에 대한 추모에 그 인간학적 본질이 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기억하고 후세에 전해주는 것이 동시대인의 책무처럼 받아들여진다. 기념공간을 이러한 기억의 기능을 통해 구분해 본다면 추모형(묘역형), 기념형(송덕형), 문화형(역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추모형은 말 그대로 죽은 자들에 대한 기림과 추모의 의식에 중점이 두어지는 묘역과 제단 등의 유형을 말한다. 국립묘지형태로 나타나는 수유리 4.19묘역, 광주 5.18묘역 등이 대표적인 유형을 이룬다. 여기서는 죽은 이들에 대한 기억과 추모로서의 제단, 그리고 묘지구성 등의 공간적 측면에 중점이 두어진다.

- 기념형에는 명예가 훌륭한 무덤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영웅적이고 명예로운 행위가 기억의

전당을 구성하고 죽음에 대한 기억은 문화적 업적을 통한 불멸에 대한 희망으로 대치된다. 건축 공간 내부에 그들의 생애와 희생적 행위, 명예에 대한 표현들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동시에 그것이 하나의 사건일 때, 좀더 복합적인 구성과 다양한 해석의 측면들을 나열하게 된다. 전자가 개인별 기념관에 해당한다면, 후자로서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등의 유형을 들 수 있다.

- 문화형이라는 유형은 기념관의 또 다른 측면들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기념공간은 추모의 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찬미도 아닌 현재적 관심에서의 역사에 대한 해석과 의미부여, 그리고 현재 생활 속의 문화적 한 측면으로서 활용되는 측면을 말한다. 부산민주공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되어졌지만 규모와 기능상의 한계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념관의 기능은 국내 사례의 경우 시대별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① 민주화 초기에는 주로 희생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묘역형이 주가 된다. 초기 민주화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희생을 기반으로 민주적 의식들이 성장하고 사회화되기 때문일 것이다.

② 이러한 묘역들이 자리 잡히면서 희생과 추모라는 엄숙함 못지않게 그러한 희생 위에서 조성된 공간이 어떤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지가 주로 고려된다. 이 과정에서 조용한 가운데에 추모와 동시에 휴식 레저 공간이 결합된 공원기능이 지워지게 된다.

③ 기념공간이 좀 더 사회 내부로 침투된 유형으로 문화센터적인 포피두센터나 공원형식의 부산민주공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추모와 휴식의 기능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회화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 내부의 소통의 채널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새로운 교육과 문화 창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묘역형, 공원형, 기념물형 기념공간의 연속선상에서 사회내부로 침투하는 기념관 양식의 창출을 과제로 던진다.

(2) 공간적 분석

- 기념공간의 목적은 사실상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고, 특정 목적만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동시에 기존 공간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기능의 추가와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변경과 추가는 물리적 공간(Physical Space)의 제약과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적 측면에서의 성격규정이 해당 기념공간의 지속적인 기본 속성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 공간적 측면에서의 주요요소는 지리적인 입지와 주변 환경 등이 일차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도심형, 외곽형, 교외형 등의 교통상의 입지는 기념공간의 성격규정에 따라 중요한 선택요소가 될 것이다. 묘역형이 교외지역에 위치한다면, 복합문화형은 도심에 위치할수록 그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는 셈이다.

- 기념공간의 건축형태 또한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으로서 가능할 수 있고, 주변 환경 또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수정, 갱신될 수 있다. 하지만 외부공간에 중점을 두는 적극적인 계획 여부에 따라 기념공간의 구성 또한 기본성격과 진행방향 등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원 등 외부환경 중심형인가 아니면 건물중심형인가의 구분이 필요하게 된다. 동시에 그것이 기존 건물 또는 환경의 보전과 재활용에 초점을 두었는지, 새롭게 신축하였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계획상의 고려요소들이 상이하게 된다.

- 도심형일수록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의 활용과 리모델링 등이 중요해지며, 환경과 건물이 결합하여 도시 공간 내에서 통합되는 측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각 사례들은 공간의 목적보다는 구현양식을 고려하면서 분석되고,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2. 의견조사

1) 조사개관

본 조사는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계획수립 기초조사’라는 제목으로 2004년 4월 10일부터 동년 5월 23일까지 실시되었다.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그리고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실시한 이 조사의 대상자는 전국의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소속 회원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정의되었다. 조사대상자에 따라 개인 혹은 자신이 속한 단체별로 설문지가 우편으로 배송되고 회송되었다. 총 12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이 중에서 707부가 응답 완료되어 결과분석에 이용되었다.

<표 3> 조사 주요 내용

개 념	주요내용
필요성 및 명칭	역사적 의의, 부가적 의의(유형문화재로서의 의의), 명칭, 과거청산법 인지여부, 기억투쟁의 내용
기능과 역할	주요사업, 주요시설, 교육필요시설
후보지	후보지선정기준, 공간적 위치(수도권과 지방), 서울에 둘 경우 적절할 장소
추진 및 운영	건립추진주체, 바람직한 자원마련형태, 운영주체, 적절한 건립시기, 기념관 규모, 방문하고 싶은 이유
일반 사항	성, 연령, 학력, 거주지, 소속단체 및 직위

설문조사에 응한 조사응답자들의 대표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거주지, 성, 연령구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표 4> 조사응답자의 거주지별 연령 및 남녀 구성

	전체	서울	인천/경기	그외 지역
사례수	694	310	133	251
<연령>				
20대	14.3%	18.1%	13.5%	10.0%
30대	45.8%	47.4%	47.4%	43.0%
40대	29.7%	23.2%	29.3%	37.8%
50대이상	10.2%	11.3%	9.8%	9.2%
합계	100.0%	100.0%	100.0%	100.0%
<성>				
여성	38.9%	45.2%	42.9%	29.1%
남성	61.1%	54.8%	57.1%	70.9%
합계	100.0%	100.0%	100.0%	100.0%

위 <표4>는 조사응답자들의 거주지, 연령 및 성별 구성은 본 조사결과의 상당부분이 지방보다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 다른 연령층에 비해 30대와 40대, 여성보다는 남성의 의견과 태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암시한다. 이하에서 주요주체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사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구성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2) 조사결과

(1) 필요성 및 명칭

먼저 기념관의 역사적 의의로서 가장 주목받는 사항은 후속세대에 대한 교육과 민주주의의 정신 계승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후속세대 교육의 중요성과 의의는 기념관의 주요기능과 시설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기념관의 명칭으로는 응답자의 78.6%가 ‘민주화운동기념관’을 더 적절한 명칭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기능과 역할

기념관의 기능과 역할에서는 기념관의 역사적 의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후속세대의 민주주의 교육이 단연 중요하게 나타났다. 시설 면에서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시설, 특히 교육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념관의 교육사업과 교육시설마련에 이어 기념관이 수행하여 할 사업으로 연구와 사료수집,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후보지 선정

기념관의 후보지 선정 기준에서는 상징성과 접근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거주지역별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념관을 수도권에 둘 것인가 혹은 지방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거주지역간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과반수를 조금 넘는 정도가 기념관을 수도권에 두자는 의견을 지지하였다. 반면 지방 거주자의 경우 수도권에 두자는 의견은 매우 적고 지방에 두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러한 차이는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서울에 기념관을 건립한다면(왜냐하면 서울 내에서도 후보지 논쟁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적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주로 4.19묘역과 남산안기부터가 거론되었다.

(4) 건립추진, 시기, 규모

- 기념관 건립 주체로는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이 위원회에는 민주화운동 당사자와 단체, 사회민중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기념관 건립재원은 ‘국고+국민성금+지자체지원’의 통합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다. 기념관 운영형태로는 ‘반관반민’과 ‘민간’의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앞으로 건립될 기념관이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요인으로는 예산확보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인력 확보문제 또한 적지 않게 지적되었다.

- 기념관이 건립될 바람직한 시기로는 지금부터 3년-5년 이내라는 의견이 다른 의견보다 많았다. 기념관의 규모에 대해서는 1만-10만평 사이에 응답자들이 고루 퍼져 있으나 20만평이상 대규모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기념관을 방문할 이유로는 단연 아이들의 교육을 들고 있으며, 과거회상 혹은 추모행사 또한 주요 이유로 언급되고 있다.

IV. (가칭)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방향과 조성의 기본구상

1.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방향과 원칙

(가칭)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방향					
허브형	복합 문화형	소프트 웨어 기획형	공간 민주형	만들어 가는 구성형	테마형

- 1) 허브형기념관: 전국 및 전 세계 민주화운동 관련시설들이 정보유통을 통해 서로 연계와 소통하는 것을 지향한다.
- 2) 복합문화형기념관: 이곳에 들어오면 각기 다른 관심사를 가진 세대와 인종, 계층들이 한 참여활동이 가능한 살아있는 공간, 복합적 다기능(민주화운동을 테마로 하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는 기념관을 지향한다.
- 3) 소프트웨어 기획형 기념관: 변화무쌍한 수용자 중심의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기념관을 지향한다.
- 4) 공간민주형 기념관: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공간의 민주화’, ‘공식적 기억의 민주화’ 혹은 ‘국민적 체험공간의 민주화’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5) 만들어가는 구성형 기념관: 독립운동과 더불어 민주화운동을 우리 현대사의 발전을 이끌어온 동력의 한 축으로 세워나간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해가는 작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분명한 자기형상을 구체적인 외형과 내용을 통해 ‘드러내는’ 것과 ‘구성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 6) 테마형 기념관: 눈에 보이는 표현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시-공간적 체험과 기억, 체험을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기념관의 조성은 문화적, 미학적이면서도 민주화운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확장하는 방식이 시각적인 테마형 공간을 지향한다.

2.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의 공간 구성요소

1) 공간구성 요소들

-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방향과 원칙을 구현할 공간 시설 혹은 구성요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후보지 여하에 관계없이 건립되어야 할 보편적인 시설들, 둘째 후보지의 특성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연계시설이다.

<표4> 공간구성 요소들

공간구성		시설별 내용		구성요소의 성격
1	전시 체험관	민주화운동 희생 전시관	권위주의 및 독재에 대하여, 민주주의에 헌신한 영웅적인 민주화운동의 족적을 보여주는 민주화투쟁기념관	기본구성 요소 (보편적 시설)
		한국현대사 박물관	독립기념관이 해방까지를 다룬다고 할 때, 해방 이후 한국현대사를 민주주의 발전과정으로 보여주는 현대사기념관 및 현대한국정치사 박물관	
		문화운동관	권위주의정권과 싸우면서 형성되어온, 저항적인 민중·민중 문화운동의 결과들을 전시하는 공간. (특수 미술관의 성격도 띄게 될 것)	
		생활민주주의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방자치, 성, 인종, 계급, 가정, 학교, 공장 등 전 삶의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생활민주주의관	
		세계민주주의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보여주고, 한국의 민주주의투쟁을 세계민주주의투쟁사의 모범으로 보여주고 체험하는 전시관	
		세계민주주의 옥외전시관	한국민주주의 발전과정을 세계민주주의의 보편사 속에서 적극적으로 위치지우는 옥외전시관(유럽관, 북미관, 중남미관, 아시아관, 아프리카관 등)	
2	자료관	민주화운동 관련 문건·물건이 보관전시, 열람, 사이버상의 연계자료관		
3	연구소	민주화운동 연구의 중심센터		
4	교육센터	민주화교육, 체험 프로그램센터, 전국적 에듀테인먼트 공간, 사이버기념관		
5	국제센터	국제연대지원센터, 국제회의개최, 민주화운동인사 초빙 및 숙식제공, 민주화운동전문도서관 운영		
6	테마공간 및 부대시설	민주시민 공원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기억하고 생활화하게 만드는 '기억과 각성의 공간'이자 편한 휴식 공간, 옥외 테마공간	
		인근주민들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구성원들에게 친근한 민주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된 시민적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7	공연장 및 문화시설	일반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문화적 공간: 공연시설, 문화광장 등		확대구성요소(연계시설)
8	컨벤션 센터 및 공연장	각종 회의들이 열리고 각종 문화·문예 공연이나 활동		
9	수련관(생활관)	야영장, 숙박체험교육시설		

② 기능 : 보존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 전시관은보존기관으로서의 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평생학습기관으로서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고 동적 이미지로 전환해야 한다.
- 이는 소장품의 수집, 보존, 연구 기능 중심의 전시가 아니라 사회교육, 문화행사 기능이 가능한 전시를 말한다.
- 전자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축적된 전자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시관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③ 교육 : 계몽에서 에듀테인먼트로

- 전시관을 통한 민주화운동 교육의 목적과 방식은 일방적인 계몽(enlightenment)에서 엔터테인먼트와 결합된 쌍방향적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로 되어야 한다.
- 에듀테인먼트란 지식의 학습과정을 이성 중심에서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토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표현한 조어로서 이러한 전시관은 즐기면서 배우는 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

④ 운영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 전시관은 소수의 관련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성별, 연령별, 계층별 문화 수용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 전시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수용지의 변화하는 문화적 수요에 부응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문화의 민주화 즉, 문화민주주의를 수용자 중심의 전시관 운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⑤ 형태 :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오프라인 결합으로

- 정보화의 확산으로 이제 전시관은 단지 오프라인 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는 존립하기 어렵게 되었다. 전시관 정보화는 전시관 업무의 능률을 올리는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전시관 활동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 온라인은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서 세계 각국의 전시관이 한 자리에서 비교되는 장이자 전시관의 주요한 홍보와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⑥ 지향 : 기억의 축적에서 미래의 창조로

- 전시관은 한 사회의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다. 이러한 기억은 유물을 통해 현재로 되살아나 자신의 뿌리인 전통을 가시화해준다. 이러한 기억의 축적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사료관

민주화운동 사료관은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보존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료들을 수집하고 조직화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민주화운동 정신의 기억과 보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료들을 수집하여 민주화운동 정신을 집합적 기억으로 승화하고 안전하게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외 관련 사료들의 수집, 구술사료 채록 및 수집, 기타 관련 사료들의 발굴활동 등이 있다.

둘째,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민주화운동 사료들을 재구성하여 집합적 기억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사료관은 사료의 분류, 정리의 원칙들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료관리 매뉴얼과 민주화운동 사료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민주화운동 정신의 전달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현재와 미래의 후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 사료관은 관련 사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련 사료들의 목록집을 발간하거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건 혹은 단체, 인물들에 대한 사전을 편찬하고, 사료의 해제나 전시 등은 민주화운동 사료들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민주화운동 사료관의 성격은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겠으나, 사료관의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현할 수 있으며, 건립과 운영의 경제성 확보 및 기존 사료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단체-기관들과의 효과적 연대를 위해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분산연계형으로 건립되는 것이 적합하다.

<표 5> 사료관의 조직유형

		집중관리	분산연계
독립	성격	· 독자적 프로그램 수행 ·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집중관리	· 독자적 프로그램 수행 · 각 지역별 보존 및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활용
	수집대상	· 전국의 모든 관련 기록물	· 사료관이 위치한 지역의 기록물
	관리	· 독립적 자료관리 프로그램	· 지역과 협력적인 자료관리 프로그램
보존	· 사료관에서 집중보존	· 각 지역에서 분산보존	
	활용	· 독립적 프로그램에 따른 활용	· 지역연계에 따른 활용
조직 및 시설	· 독립적 조직 및 인력 구성 · 대규모의 독립시설	· 독립적 조직 및 인력 구성, 네트워크를 담당할 조직의 강조	
중속	성격	· 기념관의 사업계획에 종속적인 성격 ·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집중관리	· 기념관의 사업계획에 종속적인 성격 · 각 지역별 보존 및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활용
	수집대상	· 전국의 모든 관련 기록물	· 사료관이 위치한 지역의 기록물
	관리	· 독립적 자료관리 프로그램	· 지역과 협력적인 자료관리 프로그램
보존	· 사료관에서 집중보존	· 각 지역에서 분산보존	
	활용	· 독립적 프로그램에 따른 활용	· 지역연계에 따른 활용
조직 및 시설	· 기념관 전체 조직과 조정 필요 · 기록물 관리 조직 중심 · 기념관 조직과 긴밀한 관계가 필수 · 대규모의 보존시설이 요구됨	· 기념관 전체 조직과 조정 필요 · 기록물 관리 및 지역 네트워크 중심의 조직 · 기념관 조직과 긴밀한 관계가 필수 · 최소규모의 보존시설로도 운영가능	

(3) 교육센터

-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교훈을 모른 채 민주주의가 이미 ‘주어진’ 것처럼 인식하는 젊은 세대들이 반독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귀중한 것으로 학습하고 체험하며 전승할 수 있는 계기와 방법이 필요하다. (가칭) 민주화운동기념관은 바로 다음과 같은 민주주의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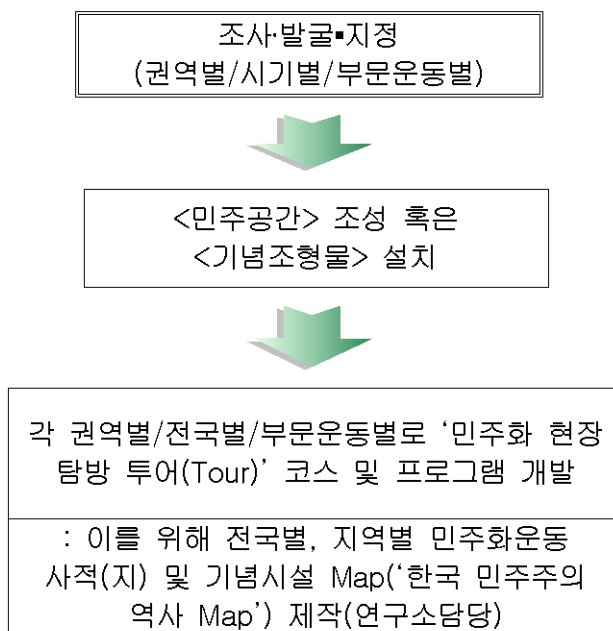
① 민주화운동의 현재화

- 과거 억압과 독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화 시켰는가에 대한 교육
- 과거 희생에 대한 기억의 추체험 교육
- 민주화 운동이 현재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

② 민주화운동의 실질적 교육과정화

-첫째, 현재적인 사회운동의 토양이나 지형을 민주적인 방향으로 ‘중립화’하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민족사의 역사적 선구형태로서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올바르게 기억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적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은 초·중·고등학생들로 하여금 현장학습을 통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립박물관 등이 이러한 체험학습의 주요 공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주화운동교육센터가 학생들에게 가장 가고 싶은, 가장 재미있게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학습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표6> 살아 움직이는 기념관



- 둘째,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의의를 공식 교육과정에서 직접 가르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사의 교과서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철저한 과거청산 작업 속에서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영역을 최대화하여 국민통합에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민주주의의 발전과 심화(실천하기)

- 과거청산 및 민주화재평가가 진행되면서 민주화운동은 과거의 비합법적·반합법적 상태에서 합법적인 상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상당한 정치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적 수준, 제반의 정치사회적 수준에 있어서 조차 제도적·비제도적인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인 가치와 문화, 관행, 사람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 그러므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생활속의 민주주의로 심화될 수 있는 사회교육, 평생교육차원의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될 것이다.

(4) 국제센터

: (가칭) 민주화운동기념관은 세계사 속에 자리 잡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거점이 될 것이다.

- 21세기 국제사회의 주요 담론은 '지구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간 경계가 약화되고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진다고 할 때 한국적인 것의 세계화가 아니라 세계적인 한국화를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육성하는 것을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 그렇다고 할 때 세계적인 한국화라는 지점에서 세계적인 민주화운동거점화를 위한 국제사업기획은 매우 주요한 사안이 된다.

- 특히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추억을 되새기는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는 생생한 삶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숭고한 역사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현재 인간다운 삶이 유린당하고 있는 세계 도처의 현장에서 억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해야만 하는 역사이기도 하다. 현재성을 가지는 우리의 민주화운동 역사가 세계의 민주인사와 함께 나누어질 때 우리의 과거 역사가 더욱 더 큰 역사로 우리의 현실이 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우리가 힘들고 고통 받았던 시절에 우리는 세계 각국의 민주인사와 민주단체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우리의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었던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 우리의 민주화운동은 세계 민주화 운동사에서도 빛나는 것이며 세계 민중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길잡이 역할을 해 왔다.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손길을 다른 나라에 내밀어 맞잡고, 세계 각국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운동을 바로 우리의 운동으로 우리의 품속에 끌어안아야 할 때이다.

- 우리의 경험을 세계 각국에 알려주고, 서로의 민주화운동 경험을 교류하며, 재정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우리가 앞장서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민주화운동에 동참해야만 우리의 숭고한 민주화운동 정신이 박제화 된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숨쉬고 세계 속에서 숨쉬는 현재의 생생한 역사로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화운동을 기반으로 한 국제연대 활동은 민주화운동 역사의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5) 연구소

○ 지속적인 심화 연구를 통한 민주화운동의 현재화, 민주주의 정신의 역사적 재구성을 위한 초석 놓기, 왜곡된 역사바로잡기, 역사적 특성 및 유형적 경로의 규명과 동아시아적·세계적 전범으로 거듭나기, 민주주의 대안 창출을 위한 이론적·역사적 모색 등의 학술적 작업은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특성화 연구역량의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의 연구소 기능은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지속적인 심화 연구를 통한 민주화운동의 현재화 : 민주주의 운동을 기념·계승하는 일은 기념관을 세워 과거를 박제화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에 담겨 있는 기본 정신, 즉 억압과 차별의 폐지 및 인권 신장 그리고 평화 실현의 이념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부단히 새롭게 재조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지난 반세기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미래 지향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변화에 조응하여 대안을 찾아나가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재해석하고 현재화할 수 있는 연구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 민주주의 정신의 역사적 재구성을 위한 초석 놓기 : 한국 근현대사의 양대 시대정신이 독립정신과 민주화(민주주의)정신이라고 할 때, 민주화 및 민주주의 정신의 역사적 재구성 작업을 위한 연구는 그 특정한 초석을 놓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왜곡된 역사바로잡기 : 반독재 민주화투쟁 및 민주주의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일은 왜곡된 공식 역사의 기록들을 정정하는 작업과, 또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부단히 새롭게 재조명하는 작업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반세기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하고 현실의 변화에 조응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재해석하고 현재화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연구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 역사적 특성 및 유형적 경로의 규명과 동아시아적·세계적 전범으로 거듭나기 : 잘 알다시피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구와 달리 독특한 발전 경로를 밟아왔다. 더구나 이른바 권위주의 정권을 유사하게 경험했다는 중남미 나라들과도 또 다른 양상을 보이며 우리 나름의 특수한 배경과 성격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반독재 민주화투쟁은 세계적 차원에서 하나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역사적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 및 동아시아적·세계적 모범사례로서의 자리매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 민주주의 대안 창출을 위한 이론적·역사적 모색 :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해 오던 다양한 민주주의 사상과 이론을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민주주의의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 전국적 차원에서의 집합적 심층 연구 : 이러한 작업은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의 사료관 및 각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관련 전문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연대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즉 민주주의사료관으로부터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아 전국적 차원의 연구 네트워크 속에서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각종 역사기록의 정정작업과 새로운 민주화운동론을 정립하며, 나아가 21세기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이며 구체적인 민주사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표7> 5대 기본 연구 사업 내용

사업 내용	
1	민주주의·민주화운동에 대한 개념 정립·사회적 합의 도출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심화·심층 연구를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3	민주화운동 사적지 조사, 발굴 및 역사 정정(현대사 바로세우기)작업
4	21세기 민주주의운동론 정립 및 새로운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대안의 창출
5	한국 민주화(민주주의)운동의 아시아적·세계적 전범으로의 자리매김

3) 사이버 민주화운동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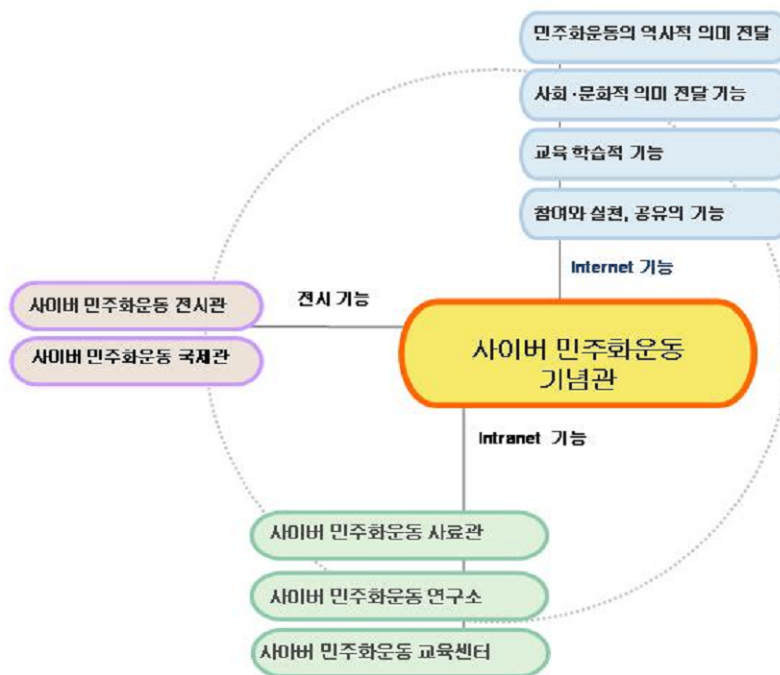
(1) 목적

사이버 민주화운동 기념관은 인터넷 망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제 단체 및 모든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의 민중에게 한국 민주화운동의 자취와 한국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알리고,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구성 및 역할

사이버 민주화운동 기념관은 크게 인트라넷 기능, 전시기능, 인터넷 기능 등 세 기능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림 1> 사이버 기념관 구상도



3.(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축방향

1) 건축의 방향

기존의 기념시설들은 기념관공간기능 및 역할의 분석에서 묘역을 중심으로 한 추모형과 전시실을 중심으로 하는 기념형,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사회내부로 침투하여 새로운 문화창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의 필요성과 의의 및 건립의 목표에서 기념관의 기능과 역할의 방향은 참여와 지역사회 공헌을 중시하는 목적을 갖는 기념관으로 테마(문화형)형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아래 기념관분류도표의 문화형 기념관에 해당되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문화적 상징재의 역할과 함께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향하는 데 있다. 이를 도표화 하면 아래와 같다.

<표8> 기념관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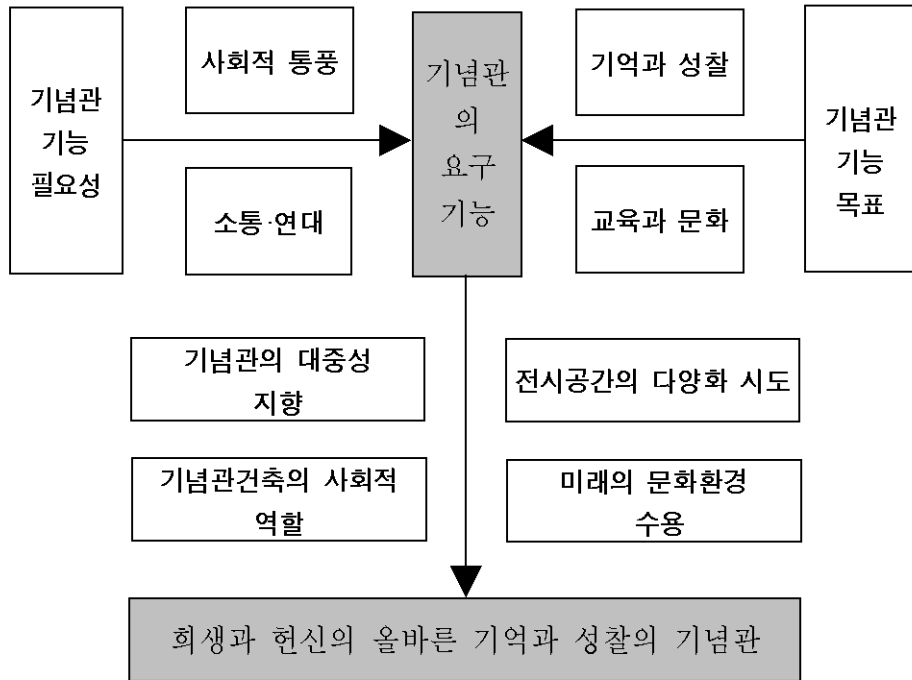
항 목	추모형	기념형	문화형
목 적	*추모지향 *묘지시설중심	*일반공개 지향 *기념적 상징의 역할	*참여와 체험지향 *지역사회에 공헌
시설중심	*묘역중심	*전시실 중심	*사업중심(기능중시)
*조사연구 *자료공개 *연구	*연구기능 없음 *자료 소극적 공개	*일반적인 관심의 범주 *한정된 자료의 개방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조사연구 실시 *자료실, 연구실의 일반 개방 *시민 공동조사 연구
*수집보관 *수장시설 *보존수복	*특별하게 없음	*관련자료 전체수집 *수장고 *외부위탁, 강습회	*선별적, 전문적 수집 *수장전시와 수장고 *전문가에 의한 보고
*전시·교육 *전시형식 *전시물 *교육보급	*전시 *상설전시 *소량의 실물전시 *전시위주	*전시중심+교육보급 *상설전시+기획전시 *실물+모형 *전시+일과성 사업	*사업중심 *참가와 체험형 전시 *다양한 전시매체 사용 *지속적인 사업중시
*운영 *홍보활동	*고립·분산적 *비실행	*계몽적 어필행위 *행정직 관장 *부분적 실행	*대사회적 메시지 *담당자에 의한 지속적인 실행

중심기능이 묘역중심, 전시실 중심, 사업중심에 따라 기념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 구분됨을 보여준다. 추모형과 기념형의 기념관은 물적 기반(묘지 또는 관련자료 및 전시물)을 기초로 한 계몽적 목적을 갖지만, 문화형 기념관은 정보를 기반으로 대사회적 요구를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갖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기념관에 대한 요구가 전시, 보존, 수집이라는 계몽적 활동에서 이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체험을 수용하는 변화된 공간을 요구한다. 변화된 요구에 따르면, 앞으로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은 즐거움이 있는

곳, 휴식이 있는 곳, 참여·체험이 있는 곳으로, 이에 걸 맞는 국제적 기능이 함께 고려되는 교육 및 연구와 사업 중심의 공간기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기능의 요구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 기념관의 건축의 기능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진이 구상한 건축방향은 아래와 같다.

① 대중성 지향

기념관은 일반적으로 전시관람 지향과 문화의 상징적 역할을 하여왔으나, 그것은 육체노동 중심 산업화시대의 문화적 향유에 적합한 역할을 해왔다. 미래지향의 지식기반경제시대의 기념관은 지역간, 세대간, 국경 없는 소통과 연대를 기반으로 시민의 참여와 체험을 중시하고, 공공공간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② 전시공간의 다양화 시도

근력경제시대의 기념관은 전시중심과 교육보급,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실물과 모형, 전시와 일과성 사업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시대의 현대기념관은 다양화, 탈장르화, 대형화, 실험화 되면서 유연한 수용성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한 요구는 사업중심, 참가와 체험형 전시, 다양한 전시매체 사용, 지속적인 사업 중심을 지향해야 한다.

③ 건축의 역할

기념관 건축은 오브제로서의 기념관기능이 요구되는 것만이 아니라 문화소비재로서 사회적 통풍장치로서의 기억, 기록의 보존, 민주화운동의 교육 및 실천, 동시대인과 미래세대의 통시적 소통과 연대의 공간을 기반으로 일상을 풍부하게 하고, 문화상징재로서 도시와 지역을 풍부하게 하는 지식기반경제시대의 커뮤니티센터 공간으로 허브형(연계소통형), 복합문화형(체험실천형), 테마형, 구성형, 공간민주형으로 건축되어야 한다.

④ 미래 지향적 문화환경 수용

현대사회는 지식기반경제사회의 기반인 인터넷환경이 구축되어 시간과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근력경제시대와 다른 시·공간압축의 시대라고 한다. 이제 기념관은 앞에서 말한 근력기반시대의 공간과 장소로서 접근되기보다는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지향성을 수용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적응성을 갖는 문화환경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2) 민주화운동기념관 적정 규모산정

이러한 건축방향에 따른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의 적정규모는 기념관의 규모를 대형 이상의 규모로 건립하는 것이 적정한 각 구성요소들의 요구공간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방향과 구성에 따른 테마형 및 복합문화형 기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념관의 적정규모로 연면적 7,000평 내외를 제안하기로 하였다.

3) 도입시설 규모산정 : 연면적 6,900 坪 기준

<표9> 주요공간 연면적 : 5,160 坪

영역구분	공간비율	공간구분	소요면적	소계	
전시·관람 (전시관)	26.09%	상설전시	800평	1,800평	
		기획·특별전시	500평		
		시민갤러리	200평		
		중앙 및 민주전시홀	200평		
		각종 부속시설	100평		
수장/사료 (수장고 사료관)	15.94%	수장고	일반수장고	100평	1,100평
			특별/특별수장고	80평	
			각종 부속시설	90평	
		사료관	서고	240평	
			열람실	300평	
			각종 부속 및 지원시설	290평	
교육·국제 센터 (교육센터)	17.39%	각종 부속 및 지원시설	50평	1,200평	
		국제회의장	200평		
		아트홀	150평		
		각종 교육관련시설	200평		
		멀티미디어실	150평		
		대·소회의실	150평		
		연수실	200평		
시청각/세미나실	100평				
연구·조사 (연구소)	3.04%	각종 부속 및 지원시설	50평	210평	
		연구 및 기획실	50평		
		서가 및 연구기자재실	60평		
		회의 및 세미나실	50평		
사무·관리 (사무처)	12.32%	각종 부속 및 지원시설	50평	850평	
		기념 및 기획사업실	100평		
		사무관련시설	100평		
		보안 및 유지시설	100평		
		설비시설	500평		

지원공간 연면적 : 1,740 坪

편의영역	3.48%	편의공간	50평	240평
		식당매점	150평	
		기념관삼	20평	
		각종 지원시설	20평	
공용·공공	21.74%	각층 홀,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주차장	1,500평	1,500평
연면적				6,900평

4. 건립비용

1) 기념관 건축부분 사업추진계획

<표10> 사업추진 계획

구분	단계	내용	기간
1단계	기본계획단계	건립추진결정/기본계획 및 검토	-
2단계	현상설계단계	설계경기지침/설계경기 및 당선작 계약	7개월
3단계	건축설계단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시설계 및 발주	20개월
4단계	실행공사단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시공사	31개월
5단계	개관준비단계	시험운영 및 개관	2개월
운영단계	개관 및 운영	-	-

2) 사업투자계획

(1) 소요건립비용 추정 및 추진

① 추정비용 구성

- ① 부지구입비 : 부지구입비는 부지매입과 관련되어 소용되는 비용
- ② 건축공사비 :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토목 및 조경공사가 포함되는 비용
- ③ 부대비용 : 실내공사비, 전시공사비, 간접공사비로 건축공사비 1/3 정도 비용

② 추정비용 기준

① 건축공사비는 건축물의 재료, 인텔리전트 빌딩화 정도, 건축의 에메니티 정도, 설비시설 등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 보통 800-1,200만원 사이의 공사비가 일반적이다.

② 각종 박물관·미술관의 기본계획연구의 공사비 구성을 참조한 결과 다음과 같으며 이를 기념관 비용구성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표11>기념관 비용 비율분석

구분	건축 공사비	기계 설비 공사비	전기 설비 공사비	토목 공사비	조경 공사비	실내 공사비	전시 공사비	간접 공사비
비율	36%	12%	10%	3%	4%	17%	8%	10%

자료 : (가칭)광주현대미술관 건립기본계획, 2000, 9

③ 위에 입각해 연면적 6,900평을 기준으로 하고, 평당 공사비는 평균가격 기준 1,050만원이지만, 기념관의 특

성화를 감안하여 평당 공사비를 1,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비용을 산출하였다.

<표12>기념관 비용 구성분석

구분	건축 공사비	기계 설비 공사비	전기 설비 공사비	토목 공사비	조경 공사비	실내 공사비	전시 공사비	간접 공사비
비용(원)	273.1억	91.1억	75.9억	22.8억	30.4억	129.1억	60.7억	75.9억

④ 상기의 비용 산출을 토대로 총공사비구성은 총공사비+부대비용+대지구입비 항목으로 대분류하였으며, 소분류는 다음의 건립비용 산출과 같다. 대지구입비는 유상과 무상으로 신청되어 있으나 유상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향후에 사업부지결정후 총공사비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도록 항목만 설정하였다.

⑤ 건립과 개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형물에 따른 외부공간의 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상징성의 주제구현비용과 내부공간의 콘텐츠 비용에 있으며, 그것은 건축물의 건립비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비용 산출은 기념관 연면적이 비슷한 4.3평화공원을 기준(2001년 4.3평화공원 조성계획 조형물 및 설치공사비용-약 200억, 전시 콘텐츠 및 자료발간 비용-200억)으로 민주화운동 기념관의 조형물 및 설치공사비와 콘텐츠 및 자료발간비용으로 각각 200억과 300억으로 상정하였다.

(2) 건립비용 산출(6,900평 기준)

<표 13> 건립비용 산출 (6,900평 기준)

대구분	소구분	내용		비율	공사비	
총건축 공사비	공사비	순공사	건축부문	평당 435만원		300억원
		부대공사	외부공간	일식		36.3억원
	공과잡비		간접노무비, 산업재해, 일반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비 약 25%	112.1억원
	VAT		공사비+공과잡비		10%	44.9억원
	합계					493.3억원
부대비용	전시시설공사비		1,700평	평당 325만원		55.2억원
	실내공사비		3,500평	평당 335만원		117.4억원
	설계경기 및 사업추진비		사업추진비(개관조직)			14.6억원
			설계경기진행비			5억원
	설계비 및감리비				공사비10%	49.3억원
	부가세		부대비용		10%	24.2억원
합계					265.7억원	
조형물공사	-			-	200억원	
콘텐츠비용	-			-	300억원	
대지구입비	대지보상비	사업부지 결정 후 산정				
총공사비						1,259억원

5. 관리, 운영 기본계획

1) 운영의 원칙

(1) 국고지원 그러나 운영재정의 독립성 확보

① 80% 이상 국고지원

-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은 권위주의적 국가 권력과 국가폭력에 저항하여 한국의 민주화를 진전시킨 사건들이었으므로 국비에 의해 사념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은 타당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문제는 국비에 의한 방식으로 재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국가 의존도가 높아졌고 예산확보 방법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처음 계획과는 달리 기념사업이 정치적 타협물이 되거나 보다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집단 및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었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 국고지원방식으로 이루어지되 국민적 합의와 지원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성금을 모금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념사업들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규모는 국민성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모금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부차적인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 하되 뜻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운영예산은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80%이상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부금과 수익사업 등에서 충당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가예산지원의 경우 매년 지원하는 보조금과 1회 지급하는 출현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표 14> 기 기념공간의 운영 현황 (2002년 기준)단위: 천원

구분	정원	부지면적	경상비/인건비/사업비	총운영비	국가지원	입장객/입장료
독립기념관	89명	3,945,146(120만평)㎡	3,664,000/2,445,000/3,867,000	9,976,000	81%	유료
부산민주공원	16명	20,337㎡	299,114/231,967/137,267	668,348	90% 이상	유료
광주 5.18 기념문화관	21명	238,043㎡	608,195/610,058/130,123	1,348,376	90%이상	유료
전쟁기념관(2000년)	-	115,500㎡	2,747,925/2,734,963/889,330	6,372,218	70-78%	유료

<표 15> 해외 유사 기념공간의 운영 현황 (2002년 기준)

구분	정원	부지면적	경쟁비/인건비/ 사업비	연간예산	국가지원	입장객/입 장료
풍피두센터	1,036명/ 무한 953명/ 49명 유한 계약/34명파견근무(370명 관광객관련, 323명 행정/343명 기 술및 문화관련)	6층건물	인건비:50.8 % 사업비: 37.4%	1200억	79%	년600만/ 유료
워싱턴홀로 코스트	정규400/봉사 400명(연구원50, 관련 자 약50, 교육40, 기차 전시부, 출판 부, 보안 및 관리직원	5층건물		419억	70 %	년500만/ 무료

② 장기적인 수익창출을 통한 자립방안 모색

- 향후 기념관 입장료, 후원수입, 사업개발(민주화운동 브랜드화)등 온갖 재원을 확대시킬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한다.
- 기존 각 기념시설들의 운영방안들을 통해 수익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한다.
- 여러 다양하고 폭넓고 생생한 그리고 exciting한 프로그램을 축진, 제공하여 기념관의 명성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여 수익을 증대한다.
- 자료저장과 이용을 통한 수익방안을 모색한다.
- 지역, 국제적 파트너를 통한 수익방안을 모색한다.
- 기존의 재정 및 운영 시스템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늘리도록 노력한다.

③ 기부금 모금 방안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대책으로 정부차원의 기부금 모금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
- 개인 차원의 민주화운동 애호가를 많이 양성하고 기부금 약정을 미리 받는다.

(2)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

-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 자체의 기관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과장 및 부서장에게 책임운영권을 보장한다.
- 따라서 교육, 전시, 사료, 연구, 국제사업의 주요 기능이 상호 원활한 소통 속에 이루어져야겠지만 각기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경우에 따라서 각 기관 독자적인 외부지원에 의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재정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문화마케팅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재정관리나 운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운영의 방향

- 지속적인 프로그램운영이 운영이 보장되도록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시대적 요구에 맞는 기능 확보를 위한 재투자와 시설보완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 다양한 (관련)시민사회운동단체가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참여주체의 활성화를 모색한다.
- 사업적으로 '민주화운동'의 브랜드화, 매뉴얼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V.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의 입지선정계획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재정적 한계 때문에 서울지역 후보지만을 검토하였지만 앞으로 범국민추진위원회 차원에서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이 지방에 위치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서울 권역 입지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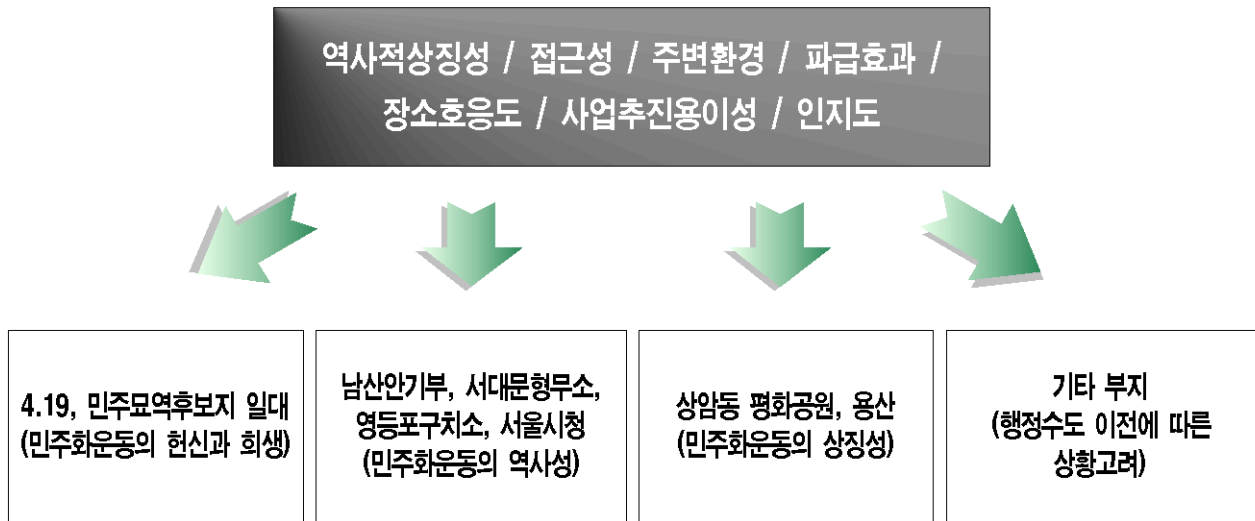
① 광주-부산-마산-서울 등 가능한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민주화운동 기념벨트 형성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은 현재 건립되어 있거나 앞으로 건립될 모든 민주화운동기념관 연계벨트를 구성하는 허브기념관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은 서울의 4.19기념물과 광주의 5·18기념물 그리고 마산과 부산의 부마항쟁 기념물 등을 전체로 하여 그것을 아우르는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공간적 중심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광주-부산-마산-대구-서울 등 주요 기념시설을 잇는 기념의 실질적인 네트워크구축 및 운영을 담당해야 하고 그런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정신적 연계와 그 중심역할이 가능한 곳에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② 광주민주항쟁과 부마항쟁의 ‘전국화’에 기여

현재 광주민주항쟁 묘역 및 기념관, 부산 민주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 대표적인 민주화투쟁은 각기 ‘지역화’되어 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지역주의 정서의 영향 하에서 이 두 가지 투쟁의 ‘전국적’ 의의가 충분히 국민적으로 공유되고 기념되어 있지 않다. ‘광주의 전국화’라는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광주의 지역화’라는 현실이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은 민주화운동의 ‘전국화’라는 관점에서 광주민주항쟁과 부마항쟁을 포함하는 민주화운동의 ‘전국성(全國性)’을 표현하고 공유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광주민주항쟁이 광주묘역 및 기념관과는 다른 방식에서, 또한 부마항쟁이 부산 민주공원에서 표현되는 것과는 다른 방식에서 광주민주항쟁과 부마항쟁이 새롭게 전국적 민주화운동의 핵심적인 일부로서 재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 5.18묘역이나 부산 민주공원 방문자는 서울의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광주 5.18이나 부마항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획득할 수 있게 되며, 서울의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 방문자가 광주 5.18기념물이나 부산 민주공원을 방문하는 경우 상호연계적인 인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그런 방향으로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에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이 있다고 하면, 시, 공간적으로 이러한 ‘전국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재정적 한계 때문에 서울지역 후보지만을 검토하였지만 앞으로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이 지방에 위치하는 경우 까지를 포함하여 범국민추진위원회 차원에서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입지선정계획의 원칙

- 기념관입지의 위상은 역사적 필요성의 의의에 따른 역사적, 세계사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그 성격은 기념관 건립목표에 따른 지역, 시민, 세대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즉, 민주화운동의 교육과 문화적 의미(문화적 요소)와 민주화운동의 교류와 소통의 위치적 의미(지리적 요소)과 민주화운동의 전승과 계승의 행위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지의 의미(장소적 요소)란 3가지 의미요소를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차원에 의해 위상을 분석하고 지역, 시민, 세대의 관점에서 성격을 분석하고자 하여 입지선정계획의 원칙을 마련하고자하였다. 따라서 기념관의 입지선정을 위해 본 연구진은 역사적 관점(상징성 포함된)을 전제로 하였으며, 그것을 문화/지리/장소를 분석요소로 하여 건립후보지를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서 기념관 입지의 선택사항과 조건에 부합되는 건립후보지를 다음과 같은 7개 후보지로 압축하여 기념관기본계획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표16> 서울 지역 7개 후보지

구별	7개 후보지	소유	부지면적(坪)	부지현황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서울시	2만여坪	상암동 평화공원 내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국방부	2만여坪	용산가족공원 일대
서울시	중구 예장동	서울시	6천여坪	남산 안기부 터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개인	1만5천여坪	4.19묘역 일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법무부	1만여坪	영등포 구치소/교도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서울시	5천여坪	서울시청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국방부	8천여坪	군부대

*** 면적은 개략 사용가능 면적을 기준하였음

3. 입지선정의 기준

기념관의 입지기준은 입지의 위상에서 역사성과 상징성에 대한 인지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입지의 성격에서는 기념의 변별성과 접근성에 있어서는 생활밀착형으로서 도시 내에 있어야 접근과 기념의 성격이 확보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기념관의 입지 기준은 접근의 일상성·대중성이 좋은 곳, 주변배후지 환경이 좋은 곳, 다른 유관시설과의 다양한 연계성이 좋은 곳, 도시정비·개발효과가 좋은 곳, 특히 앞에서 말한 입지의 위상과 성격이 중점화되는 장소의 이미지와 인지도가 좋은 곳, 확장가능성이 유리한 곳, 사업의 용이성이 좋은 곳이 우선시 되고,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라는 주제가 구현되는 테마형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입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입지기준의 선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후보지 일반사항: 후보지의 일반사항은 기념관시설이 입지하는 위치 및 면적과 기념관이 들어설 수 있는 곳 인가의 법적근거와 소유현황과 매입내용 등을 분석한다. 이것은 앞에서 서술한 본 연구진이 지향하는 기념관의 입지의 맥락과 부지구입 및 건축물의 가능여부를 파악하는 객관적 자료이다.

2) 접근성: 일반적으로 접근성은 교통수단과 보행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기에는 부족하다. 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한 기념관인가”라는 질문을 충족하는 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기념관은 대중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에 따르는 일상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 내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와 테마형 공원으로서 접근성이 요청된다.

2) 주변환경: 기념관의 주변환경은 자연환경과 주변지역이 기념관이 입지하기에 어떠한 환경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평가된다.

3) 장소의 호응도: 기념관이 입지할 부지를 일반인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4) 파급효과: 기념관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로서 지역의 요구와 수요에 바탕을 둔 기념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념관이 들어서게 될 때 지역 내에 미칠 영향, 파급효과, 주변지역에 미칠 도시정비 및 개발효과와 긍정적인 측면을 말한다.

5) 사업시행 용이성: 기념관은 하나의 완결된 건물이 아니다. 수집, 전시, 수장, 사료, 교육, 연구 및 기념사업 등의 활동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간의 확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기념관은 추후의 증축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념관 건립은 대지의 매입 및 보상의 문제, 조기착공의 가능성, 주변의 기반시설상황, 민원발생의 개연성 등이 있다. 기념관 건립의 주체는 국가와의 관계 및 사업시행에 있어 용이성을 확보해야 한다.

<표17> 입지기준의 분석 항목

분석항목			분석내용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내용	
후보지 일반사항	위치 및 면적	위치/면적 등	도심 내/도심 외 특정 장소와 관계 및 부지구입 방법/건축물의 가능여부
	법적 사항	소유현황/법규분석	
	입지 매입	유상·무상/건축방법	
접근성	국제적 접근	국제교류 방문객	민주화운동의 교류지 및 방문객의 다양한 접근성 및 일상적 접근
	국내적 접근	민주화운동 중심성	
	지역적 접근	교통/도보 등의 일상성	
주변환경	자연환경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쾌적도/시설이용의 연계성 및 인구의 밀집도와 중심 관계
	인문환경	주변의 인구이동	
	문화배경	관련 유·무형 문화	
	문화시설	유사시설 연계성	
파급효과	도시정비	광역적 맥락차원	도시구조 내의 문화적 풍부성 및 활성화 정도
	지역개발	협약적 활성화 차원	
장소 호응도	장소 이미지	역사·상징성	지역적 중심성과 역사성, 상징성, 친밀성
	장소 인지도	심리적 인식	
사업시행 용이성	확장가능성	향후 기념관의 증축	향후 미술관 수요에 따른 부지의 확장과 증축 및 사업용이성
	사업시행성	부지구입/민원 조기착공	

4. 입지선정을 위한 의견조사 분석

본 연구진의 논의를 통하여 입지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6개의 항목을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비교·검토하여 후보지 분석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표18> 후보지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역			
	전체	서울	인천/경기	그 외 지역
① 상징성	4.34	4.33	4.24	4.40
② 접근성	4.02	4.09	4.02	3.93
③ 시행용이성	3.30	3.35	3.26	3.26
④ 인지도	3.32	3.33	3.30	3.33
⑤ 연계성	3.50	3.41	3.46	3.63
⑥ 규모/부지가능성	3.13	3.12	3.05	3.18

중요도 기초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상징성><접근성><연계성><인지도><시행용이성><규모/부지가능성>으로 조사되었다. 상기의 결과는 역사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한 연구진의 인식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19> 후보지 선정 기준 중요도

선정기준	지역	전체 (n=692)	서울 (n=308)	인천/경기 (n=133)	그 외 지역 (n=251)
① 상징성		87.1%	86.0%	88.7%	87.6%
② 접근성		81.2%	81.5%	82.7%	80.1%
③ 시행용이성		32.2%	36.7%	29.3%	28.3%
④ 인지도		33.8%	36.0%	31.6%	32.3%
⑤ 연계성		40.5%	36.7%	39.8%	45.4%
⑥ 규모/부지가능성		12.0%	10.1%	13.5%	13.5%
⑦ 기타		0.6%	0.3%	0.8%	0.8%

기념관 입지의 위상에서 역사성 관련에 중점을 두고, 성격에서 문화적 관련을 기준으로 행했던 본 연구와 선정 기준의 중요도 지지율조사표는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본 연구진의 연구진행과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인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0> 서울후보지 지지도

서울후보지	지역	전체 (n=641)	서울 (n=289)	인천/경기 (n=129)	그 외 지역 (n=223)
① 4.19묘지근처		26.8%	23.9%	25.6%	31.4%
② 남산안기부터		21.7%	24.6%	29.5%	13.5%
③ 상암동		4.7%	4.8%	3.1%	5.4%
④ 서대문형무소뒤		14.2%	14.5%	13.2%	14.3%
⑤ 현 서울시청터		11.4%	14.5%	10.9%	7.6%
⑥ 영등포구치소터		4.1%	3.1%	4.7%	4.9%
⑦ 용산가족공원터		12.9%	13.1%	10.9%	13.9%
⑧ 기타		4.2%	1.4%	2.3%	9.0%
합계		100.0%	100.0%	100.0%	100.0%

설문지 조사와 후보지의 지지율은 약간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의 설문조사 결과 후보지 지지도는 아래와 같으며, 민주화운동의 직접적 역사성과 상징성을 중요하게 보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A군 후보지 : 4.19묘역 인근, 남산 안기부터

B군 후보지 : 독립공원 인근, 용산 가족공원 일대, 시청 부지

C군 후보지 : 상암 평화공원, 영등포구치소 및 교도소 부지

본 연구진의 후보지 지지군은 설문지조사와 같이 역사성과 상징성을 중요하게 보는 관점에서는 같다. 시청부지는 그러한 측면에서 A후보지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시청부지를 다음과 같은 후보군으로 분류하였다.

A군 후보지 : 남산 안기부터, 4.19묘역 인근, 시청 부지

B군 후보지 : 독립공원 인근, 용산 가족공원 내

C군 후보지 : 상암 평화공원, 영등포구치소 및 교도소 부지

5. 후보지 종합평가 지표

<표21> 후보지 종합평가 지표

분석항목			분석등급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내용	상양	용산	남산	묘역	영등	시청	독립	비고
후보지 일반 사향	위치/면적	위치+면적 등	-	적합	적합	적합	-	-	적합	
	법적 사항	소유현황+법규분석	-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입지 매입	무상/유상 등	적합	적합	적합	-	적합	적합	적합	
접근성	국제 접근	관광객 유입	적합	적합	적합	-	-	적합	적합	
	국내 접근	다양한 접근	적합	적합	적합	-	-	적합	적합	
	지역 접근	교통 및 도보	-	-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주변 환경	자연환경	자연/경관	적합	적합	적합	적합	-	-	적합	
	인문환경	인구중심	적합	적합	적합		-	적합	적합	
	문화배경	유무형 문화	적합	적합	적합	적합	-	적합	적합	
	문화시설	유관시설 관계	적합	적합	적합		-	적합	-	
파급 효과	도시정비	광역적 차원	-	-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지역개발	협약적 차원	-	-	-	적합	적합	-	-	
장소 호응도	장소상징성	역사·인문·사회 특성	-	-	적합	적합	-	적합	-	
	장소인지도	지역심리 인지도	적합	적합	적합	적합	-	적합	-	
사업 추진 용이성	확장가능성	부지확장/시설증축	-	적합	-	-	적합	-	-	
	시행용이성	구입/착공/기반시설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협의	
종합 제안	<p>후보지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p> <p>A군 후보지 : 남산 안기부터, 시청 부지로 5,000평 내외부지 4.19묘역 주변 10,000평 내외의 부지</p> <p>B군 후보지 : 4.19묘역 주변, 독립공원 주변, 용산 가족공원 으로 10,000평 내외의 부지</p> <p>C군 후보지 : 상양 평화공원, 영등포구치소 및 교도소 부지로 10,000평 이상의 부지</p> <p>상기의 후보지는 여러 공청회와 세미나를 거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념관의 입지제안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본 연구의 기준에 따라 SWOT분석으로 제시하였다.</p>									

후보지는 향후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 및 판단하기로 하여 배점화는 하지 않고, 후보지군을 SWOT분석으로 후보지 추진의 적합성을 만 언급하기로 하였다.

6. SWOT분석에 따른 후보지 평가

<표22> SWOT분석에 따른 후보지 평가

구분	분석내용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yt)	위협(Threat)
제A군 후보지	-역사성, 상징성 가장 뚜렷함 -민주화운동교류 및 중심성 확보 -주변시설연계성 좋음	-부지확보 및 기존계획과 마찰 가능성 있음 -일반시민 상대 대외적 설득력 취약	-다양한 기능과 역할수행 좋음 -지역파급효과 및 기회 긍정적 -도심 중심에 있어 다양한 활동과 연계성 좋음	-시간과 여타의 계획과 상충될 가능성이 많음
제B군 후보지	-민주화운동의 역사·상징성은 미약하나 이용자 다양성 확보	-역사성, 상징성 미약함 -시설물의 정체성 약화 가능	-국제적 매력물군으로 역할 가능 -주변의 시설과 다양한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음	-인근시설물과 경쟁관계 상존
제C군 후보지	-시설물의 공간 기능이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음 -사업시행성은 여타의 부지보다 양호함	-지역적 시설물로 기능이 한정될 우려가 있음 -도시중심에서 접근성 불리함	-지역의 정체성 및 파급효과가 긍정적으로 획득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가능성 있음	-민주화운동 관련 기억의 인지도 미약함 -대중교통접근이 불리함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입지선정은 연구진의 신념이나 선호도 등에 의한 비합리적인 요소와 민주화운동관련 집단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되었다. 동시에 향후 ‘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범국민추진위원회’가 기념관부지의 확보를 위해 상기의 분석내용이 기념관입지 확보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파악하는 기준을 마련하기위한 SWOT분석을 하였다.

VI. (가칭) 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 추진 기본계획

지금까지의 기념사업의 경우 국가정부차원에서의 보상 및 명예회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거기에 관련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입되는 과정을 가져왔다. 그러나 관 주도 추진사업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관련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총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수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그러한 왜곡된 추진과정이 이후 기념관의 운영방향과 실제운영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에 있어서는 추진과정에서부터 운영계획까지 주체에 대한 분명한 설정과 경로의 조적이 절실히 요구된다.

1.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1) 건립 추진위 구성의 방향

(1) 실질적인 네트워크화

-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은 그 건립의 현재적 의미와 개념에 근거할 때 무엇보다 전국에 산재한 사안별 운동의 연계 및 관련 주체들의 문제를 가장 먼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에 산재한 민주화관련 기념관의 하나가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유관 기념관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기념관건립의 관건이 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추진위 구성의 고민이 필요하다.

(2) 올바른 주체화

-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공간적으로 외화 하는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작업은 그 주체의 설정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광범한 역량들의 자발적 동의와 책임의식, 국민적 동의 등 민주화운동주역들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과 기념의 수준에 따라 그 외재화의 형식과 시기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지금으로서는 기념관의 건립사업은 단순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차원을 넘어서서 민주화운동에 관여했던 모든 민주인사들을 주체로 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3.15마산의거, 4.19, 6.3, 제주 4.3, 부마항쟁, 광주 5.18, 6.10 민주항쟁 등 대표적인 민주항쟁은 물론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동참한 인사들이 함께 주체로 참여하는 작업이라는 점만을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주체의 설정문제는 주체화의 의미로 다가오고, 그런 점에서 주체화의 경로가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2) 건립추진위원회구성의 원칙

- 현 단계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건립의 초동단위가 될 것이나 실질적인 추진주체는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범국민적, 사회적 주체성을 확보를 통한 국민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포괄성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진영이 폭넓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건립의 필요성과 상에 대한 사회적 환기와 의견수렴의 통로개설 및 수렴의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범국민, 범국가적 차원(정당,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민중단체 등)의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 특별히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제반의 민주단체들(민주화운동정신계승을 위한 국민연대, 유가협 및 민가협 등 민주단체, 민주노총, 민중연대 등 민중단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폭넓게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성

-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예는, 유가협 및 민가협과 같은 핵심 ‘당사자’단체들의 힘이 결정적으로 밑거름이 되었다. 이 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은 ‘당사자’격이 아닌 단체와 개인들의 폭넓은 참여가 있어야 만이 국민적 축복 위에서 건립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당사자’ 단체들이 밑거름이 되는 심정으로, 주춧돌 역할을 하되, 비(非)당사자 단체들과 개인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띄어야 한다.

(3) 민주성

- 범국민추진위원회에의 구성을 광범위하게 설정하더라도 그것의 범위를 둘러싼 쟁점이 있을 수 있다.
- 연구팀의 의견으로는, 광범위한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되 보조적으로 명확하게 반민주적이라고 평가되는 극단적인 경우를 배제하는 수준에서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과거 반독재민주화운동 진영에 섰으나 현재적 입장은 대단히 많은 스펙트럼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은 ‘과거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의 국민적 합의 위에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폭넓게 꾸려지되, 과거의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인 입장에서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경우 배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개방성

- 또 한 가지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은 단순히 박정희정권 및 전두환 정권에 대항하는 기념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19혁명 주체들이나 기타 현대사 속에서 다양한 민주화투쟁의 관련 주체 및 집단들의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사 전체를 망라하여 각종 민주적 운동들이 폭넓게 포괄되는 방향으로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5) 중심성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정책적·정치적 중심성이 인정되는 방향에서 법적, 실무적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를 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기념관 건립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법적 지위를 갖는 기구이다.
- 따라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논의 전개과정에서 빚어진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어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이 범국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실무기구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법적지위를 지나치게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도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이 갖는 중대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하지 않고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건설과 구성의 과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운동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는 못 미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시급히 민주적 교육의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는 인식을 고려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정치적·정책적 판단기구가 아니라) 법적 실무기구로서 기념관 건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이다.

- 이런 점에서의 민주화운동진영 전체의 대국적인 양보와 협력의 자세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반부터 범국민적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각종 과거청산 및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의문사 진상규명과정 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계기들을 ‘빌미’로 하여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집단의 반대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협력하는 자세로 아름다운 미래를 여는 창조의 열린 시각에서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 연구팀은 제안하고자 한다.

2. 건립추진위의 역할

1) 건립의 주체적 조건의 확보

-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은 어느 한 세력이나 단체의 공간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인권, 평화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담겨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건립추진위는 건립과정을 통해 범 민주진영의 총의를 모아내고,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2) 건립의 내용적 조건의 확보

- ① 기념관 건립에 대한 추진계획 추인과 추진
- ② 범국민 건립기금 모금 및 참여선도
- ③ 언론 홍보

3) 건립의 형식적 조건의 확보

- 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건립추진위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한다.
- ② 각종 세부단위 건립 기본계획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3. 건립 추진 경로와 일정

-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이 건립되기 까지 건립추진위에 의한 추진 경로와 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건립기본계획 확정 및 건립비용 마련, 현상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 그리고 개관 준비단계가 연차별로 요구된다.

VII. 정책적 제언 및 기대 효과

1. 정책적 제언

1)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제언:

(가칭) 민주화운동기념관은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 하에 통과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해방 이후 면면히 이어져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구현하고 후세에 계승하기 위한 기념공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념관 건립은 단순히 하나의 기념공간을 만드는 의미를 넘어서서,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①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 사업은 민족독립정신과 함께 세계사에 빛나는 민족사의 정기와 실질을 세운 민주화운동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창조적 미래를 여는 사회적 동의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②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 사업은 화폐 경제적 비용차원에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에서 민주화의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보급과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성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양적으로 계측할 수 없는 사회발전의 질적인 효과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③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은 국내 민주화운동을 총괄하고 계승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공고히 하는 것 뿐 아니라 국외 특히 제3세계의 민주화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건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민주화수준, 민주역량의 조직화정도, 문화적 활력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전에 우리가 도움을 받았듯이 제3세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민주화운동들은 우리의 민주화운동 경험의 전수와 운동의 연계화 지원에 대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을 담보하고 세계 민주화를 이끄는 거점으로서 전체 세계의 민주화발전에 기여하는 국위선양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2) 건립목표에 대한 제언

-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 과정은 단순히 또 다른 하나의 기념관이라고 하는 규모 있는 건물의 신축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우리의 민주화과정을 재평가하고 총괄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미래지향을 여는 전환의 고리, 그 역사적 전환을 다시 한번 대다수 국민들의 민주적 가치창조를 통해 열어나가는 역사적·정치적·사회적·미학적 ‘구성’과정이다.
-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① 희생과 헌신의 올바른 기억과 성찰: 미래가 올바른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 기억은 사회공동체의 공유자산으로서 젊은 세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든든한 삶의 기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은 독재의 생생한 기억과 그 독재에 대항하여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투쟁과 희생을 기억하는 복합현장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가 그 빛나는 기억 속에 연면한 현재임을 볼 수 있도록 건립되어야 한다.

② 민주화운동 계승을 위한 교육과 문화: 민주화운동의 계승은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반드시 당대의 문화적 코드와 결합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단순히 과거의 투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대중들의 생활세계 및 문화생활 속에서 유의미한 보편적인 것으로 자리 잡을 때 민주화운동은 저항문화에서 주류문화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기념, 새로운 연구, 새로운 해석, 새로운 실천적 계승, 새로운 문화적 창조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과 보급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③ 소통과 연대: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민주화투쟁을 시공간적으로 연계하며, 전국의 민주화운동 기념시설들을 분산적인 기념물이 아니라 연계된 기념물로 새롭게 구성하고, 전국에 산재한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지들을 발굴, 보존하고 바로세우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또 후세대들이 반독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귀중한 것으로 체득할 수 있는 계기와 방법을 마련하는데 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적이고 아시아적인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민주화의 회통처(回通處)가 되어야 한다.

3) 공간구성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제언

①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을 중핵으로 전국의 민주화운동 관련시설 및 전 세계 민주화운동의 정보유통을 연계하는 허브형기념관이 되어야 한다.

② 과거세대와 미래세대, 내국인과 외국인 등 각기 다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갈등 없이 교류하고 다양한 참여활동이 가능한 살아 있는 공간, 복합다기능의 문화체험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형기념관이 되어야 한다.

③ 하드웨어가 아니라 수용자 위주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하는,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운영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기획형 기념관이 되어야 한다.

④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스며든, 새 세대의 해방공간이 되는 공간민주형기념관이 되어야 한다.

⑤ 지어 놓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재생과 기념의 형상을 통한 역사 다시쓰기의 구조 변경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서 만들어가는 구성형기념관이 되어야 한다.

⑥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의 공간과 정신을 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교육할 수 있는 풍부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로 조성된 테마형기념관이 되어야 한다.

4) 후보지에 대한 제언

- ①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는 후보지는 그것의 역사적 상징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② 아울러 민주화운동의 주체세대에 대해서는 자기정리와 재충전, 차세대에는 우리 사회의 지나온 길과 가야할 길을 밝히는 학습교육공간이자 미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공간의 성격을 담아내고, 세계와의 접맥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외형적 규모가 아니라 내용적 다기능공간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접근의 용이성, 활용성, 연계성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5) 운영에 대한 제언

- ①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의 원활한 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건축비용뿐 아니라 사전에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비와 향후 운영기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기금조성의 가능성이 법적,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② 재정이 풍부할 뿐 아니라 재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국고지원에 의해 건립되더라도 독립적인 반관, 반민형태의 운영뿐 아니라 민영화도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④ 기념관을 구성하는 각 기능별로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기념관 전체 및 각 기능별 운영을 위한 내외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6) 추진위원회구성에 대한 제언

- ① 범위: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을 계획대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이 참여하는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기념관 준공 이전까지 실질적 활동을 실행한다.
- ② 5대 원칙: 포괄성, 참여성, 민주성, 개방성, 중심성
- ③ 역할
 -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요청, 범국민적 차원의 참여와 사회 분위기 형성
 - 사회적 동의 및 홍보
 - 전시, 연구, 사료, 교육 등을 담당할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에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립과정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건립과정이 추진되도록 한다.

7) 건립시기에 대한 제언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이 계획대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원조달, 양질의 건축설계 및 우수한 시공이

요구된다. 따라서 건립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최종 후보지 결정 시기를 고려하여 2007년 내 착공한다면 2010년경에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이 개관될 것을 제안한다.

2. 기대 효과

1. 국민정신의 산실

☞ 역사 바로쓰기, 역사 창조의 공간 조성 효과: 독립정신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민주화운동정신으로 세운 역사의 주된 맥락을 민주적 공간구성으로 구축함으로써 우리 역사의 주체적 맥락과 발전 동력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 바로쓰기, 새로운 미래지향의 역사 창조를 이룰 수 있다.

☞ 동시대와 미래 세대들을 위한 참된 역사의식과 역사교육의 체험 현장이 될 수 있다.

☞ 물질적 가치가 모든 인간적 삶의 척도가 되는 세상에서 진정한 인간적 가치지향이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범국민적으로 상생적 문화와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 산실이 될 것이다.

2. 국민통합의 구심점

☞ 국민들에게 억압과 독재의 고통을 극복해 온 민중민주세력의 고난에 찬 궤적을 현재화함으로써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를 이룬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과 국민적 통합의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 기념문화의 새로운 문화적 양식화를 통해 한국적 정체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국민적 삶의 문화적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이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삶의 생기로 열려 있는 생활문화공간이자 인간적 문화의 소통공간을 만남으로써 국민적 자부심과 소속감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세계사재구성과 세계평화실현의 거점

☞ ①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선도적 전형으로서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운동을 세계사의 지평 위에 자리매김함으로써 세계사 속에 결탁된 우리 근현대사를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하는 세계사다시쓰기, 서구 위주의 세계사의 재편을 주도해나감으로써 문화한국에 이어 민주한국, 평화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세계사재구성과 세계평화실현의 거점이 될 것이다.

② 특히 제 3세계의 민주화를 추동하는 소통과 연대의 공간 거점으로서 국민적 자부심과 미래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 동아시아, 아시아, 세계의 올바른 미래지향을 만들어나가는 동력추동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4. 민주화운동기념시설의 전국화 및 특성화 구축

☞ 민주화운동기념관은 단일 건물이라고 보다는, 광주 5.18관련 기념물, 부마항쟁 기념물, 4.19항쟁기념물, 민간인학살기념물 등 전국에 산재한 민주화운동 기념물들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허브 기능이 정착되면 각 지역의 기념시설의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지역의 기념관은 다른 지역의 기념관이 갖지 못한 점을 특성화하는 방식으로 통해서 중복을 피하면서 상호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다시 연계 축을 중심으로 종합하는 민주화운동의 전국화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세계로 확대함으로써 명실 공히 민주화운동의 세계적 메카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